

답 화 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장마와 함께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부는 2015년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7월 20일까지는 IC카드가 결제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조합은 대표가맹점(이비, 스마트)에게 카드 수수료를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낮추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비, 스마트는 IC카드 교체 조건으로 계약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등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지 않아 조합은 이사, 대의원 결의로 카드수수료를 근원적으로 인하 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은 부산에서 성공하여 정착되었으며, 대표가맹점(이비, 스마트) 카드수수료(약2.4%~약2.7%)의 약 1/4 수준인 (신용카드수수료 0.8%, 직불카드 0.5%)로 인하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영세가맹점 전환사업이 인천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님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조합원들이 구입해야 할 단말기 구입자금을 2018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는 바탕으로 조합은 대표가맹점(이비, 스마트)과 인천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없애고 카드수수료도 1.7%로 인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카드수수료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에 있어 걸림들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불카드(이비, 티머니)결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불카드 미결제의 근원적 해결은 대표가맹점(이비, 스마트)의 사업권 방어라는 미명아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방해 공작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선불카드 결제가 안 됨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과 영세가맹점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은 기존에 있었던 무임승차도 핸드폰 결제로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세가맹점 전환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이비 단말기 공급계약 제 21조, 스마트 단말기 공급계약 제 10조에 의거 정부시책으로 법을 바꾸어 시행하는 사항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영세가맹점 선정업체에서 IC카드단말기 전환하지 않은 조합원은 영세가맹점 전환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도록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단, 법적 분쟁에서 위약금 확정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대기업들의 자본 횡포를 이겨내고 조합원님들의 업권 보호와 업권을 신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9,000여 조합원님들의 단결된 힘뿐입니다.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을 하면서 보람과 허탈함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일부 조합원들께서 대표가맹점(이비, 스마트)에 끌려 다니지 않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영세가맹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큰 결정으로 매우 잘 한 일이

라며, 하루 빨리 영세가맹점 전환을 하겠다는 조합원님들을 볼 때 보람이었으며, 작년 1년 내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니 IC카드단말기 교환 하지 마시고 기다려 달라고 수 없이 공고문을 붙이고 문자 보내고 소식지를 통해 알려 드리며, 간곡히 부탁까지 했는데 영세가맹점 사업승인 확정일 2018년 6월 1일 현재 9,000여 조합원 중 2/3인 약 6,500명이 IC카드로 교체를 했다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님들 권익 보호를 위해 영세가맹점 전환 사업을 하면서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하지 말자고 조합 앞마당에서 개최한 집회로 인하여 *인미터로부터 업무 방해로 고발당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고 억울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싸우고 있는 현실에 조합원님들은 *인미터에서 단말기를 바꾸겠다고 조합 앞마당까지 줄 서 게시는 모습을 볼 때 이사장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혹시나 조합원님들이 민망해 할까봐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러한 작금에 모든 현실은 과거에 우리 조합 집행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서운한 감정 허탈한 마음 모두 잊고 조합은 신뢰를 받도록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오니 조합원들은 조합을 믿고 따르는 발전적인 조합의 상을 정진해 갑시다. 조합 집행부와 이사장은 복지충전소 재계약, 이비 일체형 단말기 공급계약, 조합 정관 불승인으로 인한 인천시와 행정소송승소, 인천시 보조금 예산확보, 영세가맹점 추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항간에 영세가맹점 추진은 이사장이 돈 먹으려고 추진한다. 라는 유언비어와 정관 승인이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정관이 승인 되었다고 카톡이나 밴드에 올리는가 하면 조합원들이 64%이상 찬성한 정관을 악법이라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공고를 통하여 선정하여 진행한 해외연수를 도둑연수라고 주장하는 등 구태의 물어뜯기 식, 흠집 내기 형태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궁극한 점이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조합에 와서 물어보고 논의하여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배제하고 인천시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조합원님들을 보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현재 택시업계는 70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자가용 카풀제, O₂O차량공유시스템도입, 카셰어링 확대 등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아래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구태에서 벗어나 9,000여명이 뚝뚝 뭉쳐야만 우리의 터전을 지킬 수 있고,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9,000여명이 뚝뚝 뭉쳐 우리의 업권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 07. 11.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송 일

